

이대, 올 교사임용 사상최다... 화학·영어 등 10명중 1명

(324명)

올해 324명 합격, 매년 증가세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서
부문별 수석·차석도 차지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가 2018학년도 교사임용 합격자 324명을 배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부문별 수석과 차석을 차지하며 최우수 교원양성기관의 명성을 재확인 했다.

18일 이화여대 사범대 등에 따르면, 이화여대 사범대와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원출신 324명이 2018학년도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이화여대 출신 교사임용 합격자 수는 2016학년도 262명, 2017학년도 281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올해 중등교사의 경우 212명, 초등교사 49명, 유치원교사 36명이 합격했고, 비교과(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교사는 27명이 최종 합격했다. 특히 중등부문 화학, 생물, 영어, 미술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건물 전경. /이화여대

교육에서는 전체 합격자 중 약 10%가 이화여대 출신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석과 차석의 영광도 이어졌다. 2016~2017학년도 2년 연속으로 서울 지역의 유아·초등·중등특수교육 수석을 차지한데 이어 2018학년도에도 특수교육과 출신 이은별 씨가 서울지역 초등특수

교육 수석을 차지했고, 같은 학과 박윤아 씨는 유아특수교육 차석을, 과학교육학과 졸업생 김지혜 씨는 서울지역 화학교육 수석, 최사랑(과학교육) 씨는 인천지역 지구과학교육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지역에서는 음악교육 부문에서 음악교육학과 출신 민지혜 씨와 같은 학과 권

하영 씨가 각각 수석과 차석을 휩쓸었고, 조윤주(수학교육) 씨와 유한미(미술교육) 씨는 각각 수학교육 차석과 미술교육 차석을 차지했다. 이밖에 안성원(미술교육) 씨는 충북지역에서 미술교육 부문 수석으로 합격했다.

이화여대 사범대는 지금까지 4차례(1998, 2004, 2010, 2015년)에 걸쳐 실시된 국내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최대 교원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최근 4년간 교원양성 선도사범대학 지원사업에서 최대 규모 재정 수혜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사립대학 중 유일하게 창의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화여대 사범대는 “앞으로도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추구하고 미래지향적 사범대학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으로써 종합적인 전문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장영달 우석대 총장이 지난 16일 제13대 총장 취임식에서 학교기를 휘날리고 있다. /우석대

“실용주의대학으로 발돋움”

장영달 우석대 총장 취임

4선 의원 출신 장영달 우석대 총장이 실용주의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장 총장은 지난 16일 오후 교내 문화관에서 열린 제13대 총장 취임식에서 “우석대학교를 다산사상으로 무장한 국내 최고의 개혁적 실용주의대학으로 발돋움시키겠다”며 “우석대 출신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높은 인격과 뚜렷한 인간으로서의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전직 도지사와 장관은 물론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취임식에는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권미혁·이종걸·인재근 국회의원, 김도중 원광대 총장, 김인규 경기대 총장,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 영화배우 문성근, 가수 전인권 등 각계각층 인사 50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서창훈 이사장은 임명사에서 “장영달 총장이 그동안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열정과 업적, 다양한 활동을 통해 쌓은 경륜과 출중한 능력이 우석대의 새 도약을 이끄는 탄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용수 기자

44개 대학 여교수회 ‘미투 운동’ 지지 선언

전국 44개 대학 여교수회가 18일 ‘미투(#metoo)’ 운동을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미투 피해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국내 대학 평교수 조직이 수평적으로 연대해 특정 사회운동에 대해 지지 선언문을 공동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대 여교수회가 이날 발표한 ‘미투는 우리 사회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공동 선언문에는 강원대, 경기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명지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전국 44개 국공립대와 사립대 여교수회와 일반 교수들이 참여했다.

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한국 사회에 묻혀 있던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의 문제가 미투 운동을 통해 걸로 드러났다면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을 개혁하는 운동으로 진화해 간다면 한국사회 성장을 위한 값진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쏟아져 나오는 미투(#metoo)와 위드유(#withyou) 목소

리는 오랫동안 누적된 성차별과 일상화된 여성 비하라는 구조적 문제를 표출하고 있다”며 “우리사회의 노동 문화·조직 문화의 후진성, 구성원 간 상호 존중의 부재, 권력의 오남용 등은 서로 연관된 미투운동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미투가 폭로나 고발에 그치지 않아야 하며 정파적 대립으로 인해 운동의 의미가 왜곡돼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선정적인 폭로 경쟁 속에 묻히거나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다름의 산물로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대학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해서도 “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환경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과 성희롱, 성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운동이 대학 사회에 변혁을 가져오도록 우리부터 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미투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특히 정부는 이 기회를 지속가능하고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용수 기자



‘봄이 왔어요~’

18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열고 있는 튜립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튜립을 보며 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게 맞는 교육지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교육부 ‘교육지원 한 눈에’ 개통
중위소득 50% 이하 626만원

유아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중위소득 50%(225만원) 이하 가구는 연간 626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연간 5만원)를 신규 지원 받게 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각 정책별로 해당자가 확인해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곳에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이 가능한 교육지원 정책과 금액, 신청 시기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복지와 지원정책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교육지원 한 눈에’(http://eduone.moe.go.kr)를 19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학생이나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에 대해, 수요자가 정책지원 대상 포함 여부와 신청 시기 등을 정책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 ‘교육지원 한 눈에’ 서비스는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등등 학생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금	세부내용
급식비	연 평균 63만원	3500*180식
방과후 수강권	연 평균 60만원	-
부교재비·학용품비	(초)연 평균 116만원 (중)연 평균 162만원	-
PC 1대	평균 120만원	가구당 1대
인터넷 통신비	연 평균 23만원	가구당 1회선

*시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PC설치 등 일부 항목 제외.

/자료=교육부

맞춤형 교육지원 정보 ▲신청기관 바로 가기 ▲알림서비스로 구성해 자신의 조건을 입력하면 조건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혜택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시기 알림도 제공하는 등 수요자 편의성을 높였다.

맞춤형 교육지원 정보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일반인 등 자신의 신분과 다문화학생이나 장애학생, 탈북학생 등 가구상황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 소득수준 등을 입력하면, 관련된 교육지원 사업명과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월 가구소득 225만원 이하 4인 가족에 유아 1명과 초등학생 1명이 있다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와 초등학교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학용품비 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최대 626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같은 소득 수준에서 고등학생 1명과 대학생 1명이 있을 경우, 고등학교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와 대학교 국가장학금(1유형) 등 연간 최대 982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배움 느린 학생 학습부진 돕는다

성동구 금호고, 1·2학년 영어·수학
‘맞춤형 기초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수학 맞춤반이 등장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과외를 시키는 반은 많았지만,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과목을 맞춤 교육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내 금호고등학교(교장 조호규)가 19일부터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초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

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배움이 느린 학생들에게 학습 부진 요인별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저 수준의 교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고 성취감이 학습동기로 이어져 학생 스스로 학습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이력 관리 ▲학생 성취 수준에 따라 개별 지도를 하는 영어·수학 맞춤반 운영 ▲학습두려움(도우미-배우미) ▲학습부진 학생 자기 긍정성 회복 활동 등이 운영된다.

/한용수 기자